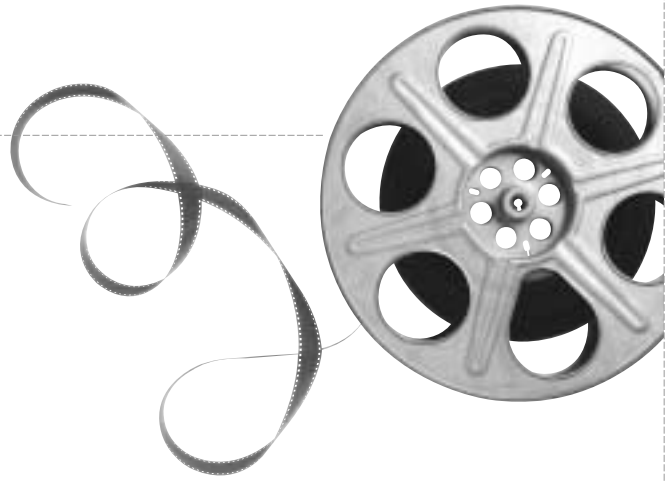


장진스러운 혹은 벤처스러운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장진 감독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다소 침체되어 있던 한국영화계의 잠을 깨운 <웰컴투 동막골>과 <박수칠 때 떠나라>를 탄생시킨 그는 '장진식 스타일'의 힘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두 편의 영화는 모두 장감독이 만들었던 연극을 원작으로 한다. 스크린으로 옮겨와 개봉하면서 <웰컴투 동막골>에는 제작자로, <박수칠 때 떠나라>에는 감독으로 참여했다. 장감독은 유독 그만을 표현해 주는 수식어가 따라 불기로 유명하다. '장진식 유머', '장진표 연출'을 비롯해 '장진스럽다'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 어느 명망한 선배 감독들도 듣지 못한 독특한 자기규정이 그에게만은 자연스럽게 붙어 다니는 것이다. 과연 그 무엇이 장감독을 장진스럽게 만드는 것일까.

장진 감독의 독특한 영역 구축

장진스러움의 첫 번째 요소로 꼽을 만한 것은 단연 '장진식 코미디 코드다. 아이러니한 상황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그의 재주는 마니아층을 형성할 정도로 꽤 높은 지지율을 자랑한다. 전쟁통에 국군, 인민군, 연합군이 한 마을에서 동거하게 된다는 <웰컴투 동막골>의 설정 역시 그의 남다른 유머감각이 여실히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소로는 일명 '장진사단'이라 불리는 배우들이 한꺼번에 출연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 장감독은 원톱, 투톱 형식의 캐스팅을 지양하고 색깔 있는 여러 배우들을 적재적소에 캐스팅하는 경향이 있다. 전작 <기막힌 사내들>, <길러들의 수다>가 그랬고 <웰컴투 동막골> 또한 다르지 않다.

탄탄한 시나리오 역시 장진스러움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다.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면서 한때 '충무로에서 장진의 손을 거치지 않은 영화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다수의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했던 그는 스토리 구성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감독의 영화에 등장하는 따뜻한 인간애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코미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순박하고 정감 넘치는 캐릭터들을 등장시켜 결국은 감동을 선사하곤 한다. <박수칠 때 떠나라>의 경우 살인사건을 다루면서 피해자의 인생, 죽을 때의 심경을 그려냄으로써 색다른 접근을 시도하기도 했다.

'벤처스러움'을 창조하는 건 벤처인의 몫

장감독의 독자적인 스타일 구축은 벤처CEO들에게도 벤치마킹할 요소를 제공한다. 벤처만의 코드를 개발하고 '벤처스러움'을 정착시킨다면 벤처의 위상도 한층 높아지리라 기대한다. 흔히 모험, 개척, 도전 등을 벤처인의 대명사처럼 사용하곤 하지만, 개별 기업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고유명사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재 등용에도 장감독의 방식을 접목할 여지는 충분하다. 핵심인재 한 두 명만으로 기업을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직원 모두가 자기만의 색깔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하며 그 중추적 역할은 CEO의 몫이다. 임직원들이 서로 마인드를 공유하면서 기업의 희로애락을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은 벤처정신의 기본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마치 든든한 사단을 구축한 것처럼 끈끈한 동료애를 발휘한다면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이다.

장감독이 가진 자신감의 근원이 탄탄한 시나리오라면 이에 해당하는 것은 벤처기업의 기술력이다. 많은 벤처기업들이 연구와 기술개발에 몰두하는 것 역시 벤처스러움을 창조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이미 보유한 기술을 특허시키는 것은 물론, 쇠신을 거듭해 나감으로써 끊임없는 자기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간애란 보편적인 가치이면서 누구에게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情)을 소중히 여기고, 직원이나 사회를 향해 인간애를 드러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벤처스러움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포인트이다.